

##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4월 11일(화) 16시: 기자촌구역 기록화 사업 편집회의
- 4월 13일(목) 16시: 기자촌구역 기록화 사업 편집회의
- 4월 14일(금) 16시: 기자촌구역 기록화 사업 편집회의
- 4월 15일(토) ~ 16일(일): 역사문화기행

## ■ 연구원 소식

### 2023년 1차 역사문화기행 (4월 15일)

4월 15일(토) 우리 연구원 평의원을 중심으로 역사문화기행이 곡성과 구례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워드 코로나에 맞춰 연구원 역사문화기행과 문학기행 등을 복원하는 첫 발자국을 통해 내실 있는 대면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55차 문화 강좌 (5월 13일)

지난 54차 문화 강좌에 이어 55차 문화강좌가 당초 예정되었던 강사인 이정욱 감독의 사정으로 4월 29일(토)에서 5월 13일(토)로 변경되었습니다. 55차 문화강좌는 <한국 무협 영화의 역사>를 주제로 열립니다.

전북이 낳은 세계적인 무협 영화 배우 왕호부터 거룡, 차룡 그리고 오늘의 정두홍까지 이어지는 무협 영화 배우와 영화의 역사를 만나는 55차 문화 강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역사속의 오늘

### 대한민국의 탄생 - 1919.4.11.

한참 아스팔트에서 울려 퍼지던 노래가 있었다. 단순한 음정과 반복되는 가사로 한번 들으면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였다. 노래 제목은 “**헌법 제1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에서 시작되어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이르기 까지 전국의 아스팔트를 달궜던 노래이다. 민중가요 작곡가로 유명한 윤민석씨가 작사 작곡한 이 노래의 노랫말은 정말 단순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만 이 가사가 무한 반복되는 노래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권력”, “국민” 이 네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궁하다. 지금의 나라 이름인 “대한민국”은 언제 정해진 것일까?

3.1항쟁 100주년이었던 작년 광복절, 당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던 이는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당시 “74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강탈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기쁨을 맞이함과 동시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도 함께 맞이했다”며 “아니,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당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중경 임시정부 청사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그의 말대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의 이름이 없었을까?

“대한(大韓)”이라는 국호는 1897년 출범한 “대한제국”에서 시작되었다. 한(韓)은 마한, 진한, 변한을 통틀어 불렀던 삼한(三韓)에서 유래한 것이다. 대한제국을 제안한 이는 고종이었는데 이름이 지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1919년 국내외에서 일어난 민인들의 독립투쟁 과정에서 상해에 건설된 임시정부는 헌법의 성격을 갖는 임시헌장을 만들며 국호를 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그날이 1919년 4월 10일이었다.

‘신한민국’, ‘한양정부’, ‘대한민국’, ‘조선공화국’ 등의 후보가 1919년 4월 10일 제출됐고 격론 끝에 이튿날인 **11일 새벽 ‘대한민국’이 공식 채택됐다**. 국명을 실제 제안한 사람은 조소앙이었고 여운형 등 일부는 “‘대한’(제국)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며 대한이라는 말을 쓰는 데 반대했다고 한다.(국명 제안자가 신석우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한이라는 이름이 국민 정서에 깊숙이 스며들었고 “일본에게 빼앗긴 국호이니 다시 찾아 독립했다는 의의를 살리는 게 좋겠다”는 주장에 최종적으로 힘이 실렸다. 이렇게 결정된 국호는 당시 중국의 <대공보>, <신화일보> 등에 보도되었고 1938년 <한민> 18호 등에도 임정수립 기념일이라고 보도했다.

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호가 정해진 것은 1948년이다. 1948년 5월 제헌국회 개원된 직후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는 가장 먼저 국호 문제를 논의했다. 제헌의원 대부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생각했기에 무난하게 ‘대한민국’을 국호로 채택하리라 예상됐다. 그러나 ‘고려공화국’, ‘조선공화국’ 등으로 나라 이름을 부르자는 주장도 제기돼 투표를 거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결정됐다.

대한민국 국호가 정해진 시점에 대한 논란은 뉴라이트 계열에서 제기한 ‘건국절 논란’과 닮은 지점에 서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이 아닌 독립국가로서 정부가 출범한 1948년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건국 60년 기념식을 여는 등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박근혜 정부 역시 2016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건국 68주년’이라고 언급했다. 현 정부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상해 임시정부 헌장”을 거명하며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를 계승했음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올 3.1절 경축사는 논하지 않겠다.

국호 제정 시점을 1919년으로 보지 않는다면 임시정부의 기록은 무엇일까?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바로세우자는 활동이 여전히 진행중인 것을 못마땅해 하는 이들에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민인들의 투쟁은 어떤 의미일까?